

廣州李氏會報



<p>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p>	<p>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p> <p>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p> <p>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p> <p>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택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p>	<p>遺子滿籛金 유자만영금 지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p> <p>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p> <p>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쉬운 말이나</p> <p>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p>
----------------------------	--------------------------------------------------------------------------------------------------------------------------------------------------------------------------------------------------------------------------------	------------------------------------------------------------------------------------------------------------------------------------------------------------------------------------


제6회 둔촌이집문학상 시상식 개최



둔촌이집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제6회

둔촌이집 문학상



(1327~87, 고려말 성리학자)

본 상/시인 김미윤
수상작 시집 『간이역을 지나며』

우수상/소설가 신지견
수상작 소설집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일시: 2023. 9. 14(목) 오전 11:00
장소: 둔촌재실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20(하대원동)

주최: 한국작가협회
주관: 둔촌문학상운영위원회
후원: 광주이씨대종회

*이 글꼴명으로 초창장을 대신합니다.

둔촌이집문학상 포스터

제6회 “둔촌이집문학상” 시상식이, 2023년 9월 14일(목) 11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둔촌 선생 재실(追慕齋)에서 있었다. 이날은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평일인 관계로, 대종회 상근임원, 산하 각 지파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하여, 주최 측의 진행요원 및 문인

등,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둔촌이집문학상은 廣州이씨의 증후조이며, 고려말 대학자인 둔촌 이집(1327-1387) 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고,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작가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을 발표한 문인을 선정 시상하는 문학상으로, 한국작가협회가 주최하고, 둔촌이집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이씨 대종회가 후원하고 있다. 제6회 “둔촌이집 문학상”에 응모된 작품은 시, 소설, 수필 등 124편이었다. 예심을 거쳐 2023년 8월 18일 본심 심사위원 5인의 의견일치로 본상 1인, 우수상 1인을 선정하였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수상 작품은, 본상에 김미윤 시인의 「간이역을 지나며」가, 우수상에는 신지견 소설가의 소설집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가 선정되었다.

본상을 수상한 김미윤 시인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시문학」의 추천을 받고 「월간문학」에 당선하였다. 「한국문예」에 미술평론이 당선되어 평론가로 활동하였다. 마산문인협회장, 마산예총회장, 경남문학관장, 경남시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래시인회 회원으로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시

인협회 회원, 생활문화예술협회 회장으로 있다.

「녹두나무 녹두꽃 피는 뜻」, 「갯가에서 부는 바람」, 「흑백에서」 등 시집과 사화집 「밭 속의 꽃밭」, 「햇살은 명암을 남기며」, 「목신의 숨결」 등이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신지견 소설가는 경희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1970년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여 소설가 황순원 선생으로부터 사사하였으며, 「현대불교」 편집장을 역임하고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있다. 대하 장편소설 「서산」(10권), 「천년의 전쟁」(7권), 장편소설 「산 허리에 핀꽃」, 「꽃들이 하나로 핀다」, 에세이집 「한 방울의 눈물」 등이 있다.



둔촌이집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2023 둔촌이집문학상 심사평

[본상]

김미윤 시집 「간이역을 지나며」



김미윤 시인은 1986년 「시문학」과 「월간 문학」으로 등단한 중견시인으로 시집 「녹두나무에 녹두꽃 피는 뜻」 외 4권, 사화집 「밭 속의 꽃밭」 외 4권

등 부단히 경남 마산에서 창작활동을 전개해 온 시인이며 평론가이다. 금년(2023)도 둔촌이집문학상 본상 수상작으로 결정한 시집 「간이역을 지나며」는 인간의 원초적인 정서를 표출해 낸 서정시의 본류를 환기시켜 주는 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집의 발문 평설을 쓴 문학평론가 강외석에 의하면 그의 시는 시인의 “혼자 말하기의 화법으로 우리의 심리를 원시 상태로 순수하게 데려가는” 특징이 있는 시로, 그의 시 세계는 이 세계에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비인

간성의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김미윤 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그의 시가 한국 전통 서정시의 맥락속에서 숨 쉬고 있으며, 그 나름 현대시의 경계에서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시 연작시 「인도기행」(10편)과 연작시 「여행일기」(10)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행시의 새로운 지평은 한국시의 범주를 넓히고, 여정의 사색, 그 인식의 깊이를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우수상]



신지견 소설집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많은 작품집 중 신지견 소설가의 「독수리는 파

리를 잡지 않는다」를 보며 “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났다. 우선 책의 얼굴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입견을 버리고 읽어보았다. 9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소설은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소설에는 현실정치의 단면도

거론하지만 그 뒷면에는 불교적 사유가 큰 그림으로 펼쳐져 있다. 경희대 황순원 선생의 제자답게 내공이 쌓인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 수상작으로 천거하였다.

- 심사위원 : 오경자, 이길원, 유한근, 김건중, 김길형

청백리공(諱 之直) 불천위제 봉행

2023년 9월 4일(음 7. 20) 오전 11시. 성남 소재 청백리공(諱 之直) 선조의 사당(추모재내에 감실을 모시고 있음)에서는, 청백리공 서세 604주기 불천위제가 봉행되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종인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대종회 집행임원 및 지파 회장과 임원 등 약 50여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간소한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 봉행에 있어, 초헌에 큰 아드님댁 후손을 대표해서 사인공파 종회 용화 회장, 아헌에 둘째 아드님댁 후손을 대표해서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종헌에 셋째 아드님댁 후손을 대표해서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이 헌작하였다. 그리고 제례의 집전은 독축에 결재 전 대종회 총무이사, 집례에 종성 대종회 부회장, 집사에 경기남부청장년회 소속 종우, 문재, 무환, 종목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제례 봉행에 광원군파 종회에서 향축을 봉헌하였다. 제례 봉행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청백리공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음복을 겸한 점심 식사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불천위제 봉행 봉축은 다음과 같다.

早才文盛	젊은 나이에 학문이 높으시어
二國名望	두 나라에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清白人慕	청백함을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憂國哀情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은
標叩馬諫	말고삐를 붙들고 간함에 나타나니
黨與夷齊	모든 사람이 백이와 숙제라
	칭송하였습니다.
日月爭輝	일월과 빛을 다투시고
大義泰山	대의는 큰 태산과 같으셨으니
首選清白	청백리에 수위에 오르시어
盛德史留	성덕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謹以	삼가
清酌庶修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祗遷歲事	조촐하게 올리오니
尙饗	흠향하소서

공의 자는 백평(伯平)이고, 호는 탄천(炭川)이며, 휘는 지직(之直)인데, 초명은 도(途)이셨다. 고려 공민왕 갑오년(1354)에 둔촌선생의 장자로 탄생하여, 포은선생(정몽주) 문하에서 동생인 지강(之剛) · 지유(之柔)와 함께 사사(스승으로 섬김)하였다. 학문이 고명하고, 처사가 강정하였으며, 황명홍무(皇明洪武) 13년 경신(1380, 고려 우왕 6)에, 전구서승(典廢署丞)으로 문과에 아원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들었고, 1392년 우왕 1년



청백리공 불천위제

정몽주가 살해된 후, 그 일당으로 몰려 잠시 삭탈관직 되었다가, 경승부 소윤에 임명되었으며, 평창 · 청주 · 충주목사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되어 태조 원년 관동 · 호서지방의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를 거쳐 태조 6년 형조참의 보문각 직제학을 배명 받았으며, 태조 7년(1398) 소도(昭悼)의 변란이 일어나자, 고마극간(말 머리를 붙들고 끝까지 간한다는 말)으로 절의를 드러내니, 좌 · 우의 병사들이 죽이려 하거늘, 태종(당시는 芳遠)이 급히 돌아보며 제지하고 말하기를 「이 분은 나의 친구인데, 어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하는 일이겠느냐」 고 하였다. 춘정 변계량(卞季良)이 이때 혼자 말하기를 「이공(李公)의 충의지심은 위로는 일월과 빛을 다투고, 아래로는 백이 숙제와 더불어 지조를 견줄 분으로, 삼대(三代)

歲序遷易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諱日復臨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의 직신(곧은 신하)이요, 천재(천년)에 오직 한 사람 있을까 말까한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겨우 극형을 면하고, 금고의 처벌만을 해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 후 광주 탄천(炭川)의 촌사(村舍)에서 살았는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탄천선생(炭川先生)이라 일컬었다. 태종 1년 1월 강원도 안렴사(按廉使)를 거쳐, 태종 2년 4월 내서사인으로 있을 때, 왕은 행실을 바로 해야 한다는 직언(直言)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가, 태종 4년 5월 사헌부 집의를 배명 받았으나, 사간원의 상소에 의해 다시 파직되고, 태종 9년 3월 성주목사(星州牧使)에 배수되자, 부인(貞敬夫人)의 병환으로 사임을 청하니, 사헌부로 하여금 연고를 핑계하여 사임한다며 핵문(劾問)토록 하고, 평택(平澤)에 유배(流配)시켰다가, 4월에 외방종편(외인의 의사에 따라 서울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게 하는 것)의 명을 받고 탄천에 물러났다. 태종이 만년에 동궁(후일 세종대왕)에게 당부하여 다시 등용하라고 하므로, 세종이 즉위하면서 형 조우참의(刑曹右參議)로 불렀으나, 부임을 하지

못하고, 세종 기해년(1419) 7월 20일 서거하니 향년 66세이다.

태종조에 청백리(清白吏)의 선록(選錄)을 받고, 단종 3년 을해(1455) 2월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고신(告身)을 돌려주게 하였으며, 자귀(忠僖公仁孫)로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추관홍문관예문관서운관사에 증직되었으며, 영조 49년 계사(1773)에 영남(嶺南)의 유도회(儒道會)가 도산(陶山)에서 태학(太學)에 통고하여, 창녕(昌寧)에 원우(院宇)를 세워 운곡(雲谷)이라 하고, 배향(配享)하여 조두(제향)를 올리게 되었다.

배위 증정경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는 지인 주부사 원보(諱 元普)의 따님으로, 정경부인에 오르고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공의 묘소는 광주군 세촌면 대원리 음촌(현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산 311번지)으로, 둔촌 묘소 서편 별강계좌이며, 9대손 휴징(休徵)이 표석을 세우고 비문을 썼다. 배위 증정경부인 경주이씨의 묘소는 부군(정백리공)의 묘소 위쪽(墓上)에 계신다.

장자의 자는 맹운(孟胤)으로 휘는 장손(長孫)이며, 태종 신묘(1411)년에 문과급제하여 통정대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을 지냈고 31세에 서거하니, 창녕(昌寧)의 운곡서원(雲谷書院)에 배향되었다. 초장지는 광주군 세촌면 상대원리 건좌였으나, 경술(1970)년에 성남시 하대원동 둔촌선생 묘하(墓下)로 천묘(遷墓)하였다. 차자의 자는 증윤(仲胤)이고, 호는 풍애(楓崖)이며, 휘는 인손(仁孫)이다. 원종2등공신으로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의 증직을 받았으며, 시호(諡號)는 충희(忠僖)이다.

3자의 자는 계윤(季胤)이며, 휘는 예손(禮孫)으로, 세종 갑인(1434)년에 문과급제하여,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역임하였고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장녀는 부정 김허(副正 金虛)이고, 2녀는 사정 우효안(司正 禹孝安)이며, 3녀는 절도사 류심(柳深)이고, 4녀는 주부 정오(鄭晤)이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

■ 광림군(諡 文僖 諱 廷立) 428주기 불천위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3년 9월 26일(화) 광림군(廣林君, 諱 廷立) 서세 428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본 종회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대중회 용두 상임부회장,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 총회공 종회 종성 전 회장 대행,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 회장,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 회장, 문경경파 종회 종민 총무, 종덕 재무 등 25명의 직·방손이 참석하였다. 이날 분정은 초헌례에 봉수 회장, 아헌례에 성호 회장, 종헌례에는 충교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집례에는 종봉 화수회 총무, 축에는 만재 부회장 좌·우 집사에는 종길, 종철, 종민(본 종회), 종덕(문경공파 종회) 현종이 맡아 수고 하였다. 제례 봉행에 향족대를 봉헌에 주신 모든 지파 종회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개별적으로 향족대를 봉헌해 주신 종민, 종덕(문경공파) 현종께 감사드린다.

광림군(廣林君)의 휘는 정립(諱 廷立)이고 자는 자정(子政)이며 호는 계은(溪隱)이고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공은 1556년(명종 11)에 탄생하여 1595(선조 28) 40세의 일기로 서거하였다. 광릉부원군(諱 克培)의 5대 증손으로, 1576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8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입문하였다. 1582년 의정부 수찬으로 있을 때, 임금이 대제학 이이(율곡) 선생에게 명하기를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의하려고 하니, 젊고 총

명하며 재주가 많은 신하 여러 명을 선발하여 올리라 하므로, 율곡 선생은 다섯 명을 천거하여 올렸는데, 공과 한음선생(諱 德馨), 백사 이항복 선생 3인이 함께 참여(參詣)되었다. 이때 임금을 비롯한 경상(卿相)들로 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이세분은 동시에 1580년 경진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경진삼이(庚辰三李)라고 불렀으며, 글로써 모이고 도(道)로서 강론하니 또한 삼학사(三學士)라 일컬었다. 공은 1582년에 사관, 예조좌랑, 사간원 정언에 오르고, 이듬해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하고, 이조좌랑으로 있을 때 어사(御使)의 명을 받고 호남 지방에 내려가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진구하였다. 또한 경상도 암행어사로 지방을 돌아 입경하여 탐관오리들의 불법 문서를 포착하고 이들을 모두 파직시켰다.

1589년 기축옥사를 다스린 功으로 평난공신(平難功臣)에 책록되었으며, 사헌부 장령, 집의, 응교, 직제학, 동부승지, 형조참의, 좌승지를 거쳐 1592년 임진란에는 예조참의로 임금을 호종하였다. 이후 병조참판, 한성부 좌윤,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광림군(廣林君)에 봉해졌다. 공은 아쉽게도 1595년 여산에서 수(壽)를 다하지 못하고 객사(客死)하니, 이때 향년 40세였다. 한때 공이 불편한 몸으로 인하여 사직장을 올리니 비변사 당상 서애 유성룡(柳成龍)은 말하기를 “재신(宰臣)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맑기가 이모(李某, 공을 말함) 같은 사람을 어디서 구해 오겠는가!” 하였다. 공은 사후 증직이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희(文僖)의 시호를 받았으며, 저서에 「계은집」이 있다.

광림군(廣林君) 정립(諱 廷立)의 비명

(碑銘)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선조 13년)에서부터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까지 10년 사이에 새로이 조정(朝廷)에 나간 사람으로 친구가 3인이 있으니, 발자취를 같이하고 어깨를 견주며 글로써 서로 모이고 도(道)로써 강론하였다. 그 한 사람은 상공(相公) 이 명보[李明甫, 명보(明甫)는 이덕형(李德馨)의 자(字)임]이고, 한 사람은 참판(李參判) 이 자정[李子政, 자정(子政)은 이정립(李廷立)의 자(字)임]이며, 또 한 사람은 나로서 같이 선종(宣宗, 선조)을 섬기니, 세상에서 삼학사(三學士)라 하였다. 하루는 내가 자정에게 지나다가 우연히 그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 세상에서 잘 모르는 것을 말했더니, 자정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말하기를, “신(神)인가? 어떻게 나의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는가?” 하였다. 이것은 내가 자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지기(知己)의 우(友)로다. 다른 날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묘지문(墓誌文)을 쓰고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자네의 묘지문을 쓰기로 하고 서로 잊어버리지 말기로 하자.” 고 약속하였다.

그 후 을미년(乙未年, 1595년 선조 28년)에 나이 40세로 여산(礪山)에서 객사(客死)하니, 임금



광림군 불천위제를 마치고

이 삼도(三道)에 명을 내려 호상(護喪)을 하여 광주(廣州)에 있는 선인(先人)의 묘소 아래 장례를 지냈다. 그 후 20년이 지나 금상(今上) 7년 되는 계축년(癸丑年, 1613년 광해군 5년)에 크게 공신(功臣)을 봉하는데 원종(原從)의 모든 신하들이 다 자급을 올리게 되어 예에 따라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니, 그의 아들 이현담(李玄聃)이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며 명(銘)을 부탁하였다. 이 해에 이 명보가 죽으니, 내가 울며 말하기를, “상수리나무는 쓸모가 없어 수(壽)한다더니 두 친구가 다 죽고 나만이 남아서 연달아 두 집안의 지문(誌文)을 쓰는 일을 보게 되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차마 이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이씨(李氏)는 광주(廣州)의 대성(大姓)으로서 그 시조 이집(李集)은 탁월한 큰 절개가 있어서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목은(牧隱, 이색(李穡))과 특별히 좋은 벗이 되었다. 일찍이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부도(不道)한 행동을 나쁘다고 했더니, 신돈이 죽이려고 꾀하므로 부친을 업고 남으로 내려가 영천(永川)에 숨어서 자기 호(號)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아들 이지직(李之直)이 소도지변(昭悼之變)을 당하여 말고삐를 잡고 두드리며 간(諫)함으로 크게 이름이 났고, 그 아들 이인손(李仁孫)은 우의정(右議政)이다. 그 아들 이극배(李克培)는 영의정이고, 증손(曾孫)에 이르러 이이건(李以乾)은 유곡찰방(幽谷察訪)으로서 증(贈) 좌승지(左承旨)이다. 이시무(李時茂)를 낳으니, 장례원판결사(掌隸院判決事)로서 조용하고 깨끗하며 글읽기를 좋아하고 남과 교제하기를 삼가며 고사전(高士傳)에 이름이 뛰어났다.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종실(宗室)인 의원군(義原君) 이억(李億)의 딸에게 장가들어 가정(嘉靖) 병진년(丙辰年, 1556년 명종 11년)에 이 자정을 낳았는데, 이 자정을 낳은 뒤 아씨(阿氏)가 병들어 췌를 먹일 수 없으므로 비복(婢僕)이 안고 외가에 데려다 두었다.

4세에 어머니에게 돌아오니 하는 행동이 보통 아이와 달라서 한 집안이 기특히 생각하였다. 11세에 《한서(漢書)》를 사문(斯文) 최입(崔岳)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항상 당세에 제일류라고 칭찬하였다. 13세 때 삼도부(三都賦)를 가지고 사암(思庵) 박순(朴淳)에게 보이니, 사암이 크게 기특히 여겼는데, 이름을 크게 떨쳐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씨(李氏) 집에 문장아(文章兒)가 있다.” 고 하니, 공경 대부(公卿大夫)들이 다 한번 보고 싶어하였다.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선조 9년)에 성균관(成均館)에 올라가고,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선조 13년)에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뽑혀 들어가고, 신사년(辛巳年, 1581년 선조 14년)에 사관(史官)으로 천거 받고, 임오년(壬午年, 1582년 선조 15년)에 승진하여 예조 좌랑(禮曹佐郎)·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병조 좌랑(兵曹佐郎)·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을 역임하였다.

그 때에 울곡(栗谷)이 마침 문형(文衡)의 관직에 있었다. 어느 날 경연(經筵)에서 선종(宣宗)이 이르기를, “근일에 《훈의강목(訓議綱目)》을 강의하고자 하는데 연소하고 재주 있고 총명한 신하 몇 명만 뽑으라. 내가 미리 내장(內藏)된 어질(御秩)을 주어서 강독하게 해서 고문(顧問)으로 삼고자 한다.” 는 명령이 내리니, 조정에서 눈을 씻고 자세히 살폈다. 이때 울곡이 5인을 천거하니, 이 명보와 이 자정과 내가 같이 참여하였다. 잇달아 서당(書堂)에 있으면서 사가 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았으니, 당시에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로부터 우리 3인은 벼슬 지내기를 대략 서로 같이 하였다.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선조 16년)에 이조 좌랑(吏曹佐郎)이 되고, 명년(明年)에 어사(御史)로서 호남(湖南) 땅의 살기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였고, 이때부터 이조 정랑(吏曹正郎)·병조 정랑(兵曹正郎)과 양사(兩司)의 지평(持平)·헌납(獻納)과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를 지냈다. 기축년(己丑年, 1589년 선조 22년)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나와 같이 국청(鞠廳) 낭관(郎官)이 되었다가 평난공신(平難功臣)으로 책봉받고 또 장령(掌令)·집의(執義)·사간(司諫)·응교(應教)·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고,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에 승진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얼마 있다가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옮기고 좌승지(左承旨)로 옮겼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선조가 서쪽으로 파천하여 금교역(金郊驛)에 이르렀을 때 이 자정이 종사(宗社)의 위판(位版)이 아직도 개성(開城)에 있다고 하니, 임금이 곧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삼고 가서 모셔 오라 하여 곧바로 달려가서 성(城) 밖에 이르니, 주민들이 말리며 말하기를, “적장(賊將)이 왔으니 헛되이 죽음을 당할 뿐 아무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 자정은 이 말을 들은 체도 않고 곧바로 가서 돌아보지도 않고 목주(木主)를 모셔와서 평양(平壤)까지 가게 되니, 벼슬을 올려 병조 참판(兵曹參判)이 되었다. 적세(賊勢)가 날로 급하니 선조가 장차 평양을 떠날 때 양궁(兩宮)이 길을 갈라서 가게 되었는데, 나는 병조 판서(兵曹判書)로서 임금을 모시고 서쪽으로 떠나고 이 자정은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중전(中殿)을 호위하며 동궁(東宮)을 모시고 자산(慈山)으로부터 순천(順天)·개천(价川)·희천(熙川)을 거쳐 장동(長洞)·평전(平田)으로 들러 곡산(谷山)에 이르러 부친상(父親喪)을 듣고 돌아갔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과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 3년에 걸쳐 기용할 것을 명했으나 집상(執喪) 중이라며 굳이 사양하기를 변함이 없으니, 임금이 특별히 윤택하고 제수(祭需)를 내려 주었다. 삼년상이 끝나니,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에 제배하고 외직으로 나가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다.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서행(西行)할 때 상(喪)을 당한 비참했던 일은 내가 언제나 잊지 않는다.” 하니, 이 자정이 울면서 그때 시국 형편을

자세히 말하였다.

황해도(黃海道)에 들어가 먼저 효자와 열녀와 모든 장사(將士)들 가운데 공을 세우고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서 일일이 응분의 표창을 하게 하였다. 때마침 조정에서 (중흥하는) 초창기여서 법제(法制)가 수립되지 않아, 탐관(貪官)과 교활한 아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구 굶어먹고 있는 지라 이 자정이 아독(牙蠹, 감사의 기(旗))을 세워 비록 대관(大官)의 의범(儀範)이 있었으나 그 행장은 오직 일숙(一束)의 서책뿐이었다. 자신의 몸가짐과 아랫사람을 단속하는 데 엄정(嚴正)하여 하나도 사사로움이 없는지라 모든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손을 거두고 감히 불법(不法)한 일을 못하였다. 얼마 후에 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니, 유서애(柳西厓)가 비변사(備邊司)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재신(才臣)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깨끗하기가 이모(李某) 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어 오겠는가?” 하였다.

선조가 과연 자정이 국사(國事)를 위하여 진심하는 것을 알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걱정하다가 공이 두 번 사임하고자 하니, 비로소 허락하였다. 조정에 들어와 광림군(廣林君)이 되었다. 자정이 도승지(都承旨) 이순인(李純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으니, 이현담(李玄聃)·이원담(李元聃) 두 형제는 음직으로 벼슬에 보임되었는데 다 아들이 없고, 막내 이진담(李眞聃)은 사인(士人)인데 2남을 낳으니 다 어렵다. 승지공(承旨公)이 임금의 행차를 따르다가 도중에 별세하니, 이때에 와서 여산(礪山)에 반장(返葬)하기로 해서 자정이 돌아가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는데 마침내 그 장지(葬地)에서 졸(卒)하였다.

자정의 휘(諱)는 정립(廷立)이요, 자호(自號)를 계은(溪隱)이라 하였다. 처음에 자정이 같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학(道學)으로 향해서 울곡(栗谷, 이이(李珥))과 우계(牛溪, 성혼(成渾)) 문하에서 공부하여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루 일세의 명사와 널리 사귀어서 모두 다 수양하는 데 힘이 되었다. 본래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욕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것을 아주 버리거나 금제(禁制)하는 법이 없고 스스로 그 좋거나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 사람과 더불어 서로 경계가 없어서 종일토록 서로 이야기를 하여도 언제나 어긋남이 없고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남의 한 가지 잘한 일을 들으면 문득 공경하고 감탄하며 그대로 두지 않았다. 관(官)에서 일을 만났을 때는 먼저 그 의(義)나 이(利)나를 살펴서 이일 것 같으면 급히 일어나 피해서 장차 자기를 더럽힐 것 같이 여겼고, 의일 것 같으면 용맹하게 달려가서 좋고 욕심나는 것같이 하여 공경스럽게 하며 조심성 있게 다루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겨 종신토록 누가 될까 두려워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지극히 효도하여 출입할 때면 반드시 고하고 조석(朝夕)으로 반찬을 살펴보며 아침부터 모시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았다. 항상 모든 제매(弟妹)들이 가난해서 의지할 데 없는 것을 가

엽게 여겨 장획(臧獲)과 전토(田土)의 미호(美好)한 것을 골라서 우선 먼저 주었고, 생산 작업에는 번번이 못 본 척하였다. 독서하고 글을 저술함에는 항상 모자라는 듯하며 조용히 일실(一室)에 처하여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점심 때가 되도록 밥 먹을 줄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으니, 사람들은 세상

일에 초연하며 <태현(太玄)>을 저술한 한(漢)나라 양웅(揚雄)에 비유하였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온화하고 엄숙하기는 저 옥(玉)이 박(璞)으로 있는 듯하고, 그윽하고 시원하기는 저 얼음이 구렁에 있는 듯하네. 광주(廣州) 땅 남쪽 구천(狗遷) 아

래쪽에 4척(尺) 높이의 봉분이 있으니, 이것이 곧 그대의 현택(玄宅)이로다.

- 비명(碑銘)은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이 찬하였다.

- 광릉부원군과 종회 총무이사 문수(文守) 記

문경공파종회

■ 문효사(文孝祠) 4위(四位) 불천위 제 봉행

2023년 9월 11일(음 7. 27) 11시.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연지길 47-6 광주이씨 문경공파의 파조인 문경공(諱 克堧)의 종택 후원에 소재한 문효사(文孝祠)에서는 광성군 문경공 휘 극감(諱 克堧) 서세 555주기, 광양군 판중추 휘 세좌(諱 世佐) 서세 519주기, 광안군 정효공 휘 연경(諱 延慶) 서세 475주기, 광남군 증장공 휘 광악(諱 光岳) 서세 415주기 4위(四位)의 불천위 대제가 있었다. 문효사는 광성군(諱 克堧), 광양군(諱 世佐), 광안군(諱 延慶), 광남군(諱 光岳) 네 분의 불천위를 봉향하고 있는 별묘이다. 중종 2년(1504) 광성군, 광양군의 별묘 광성사(廣城祠)가 충북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반송에 모셔지고, 인조 11년(1633) 9월 15일 광안군, 광남군 별묘(灘叟祠)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연지길 47-6 화산에 모셔졌다. 대한제국 광무 4년(1900) 10월 28일 광성사를 현 소재지에 옮겨 짓고, 1983년 두 묘사를 합설하여 중건하고, 문경공의 문(文)과 정효공의 효(孝)를 따와 문효사(文孝祠)라 현판하였다. 그러나 묘사(廟祠)가 초라하고 낡아, 2009년 10월 17일 대종회의 지원으로 중건하여, 전면 5칸 측면 2칸의 현 문효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날 절기상 귀뚜라미가 찌르르 우는 초가을이지만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경향 각지에서 종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승조의 마음을 크게 높였다. 특히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종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과 종성 부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파 종회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제례는 봉향위 별로 기일에 봉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겠지만, 4위의 불천위와 배위까지 9분의 제례를 각 기일에 지내야 하는 현실적인 제례봉행의 어려움, 전국에 퍼져있는 후손들의 참여 여부, 제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문경공 선조의 기제일(忌祭日)에 하위(下位) 봉향위를 합설로 제례를 모셨다.

이날 문경공 21대 종손 광희는 인사말에서 “항상 문경공파 종손으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여러 종친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모시는 스무 분의 할아버지 중에서 여섯 분이 군호(君號)를 받으신 집안의 종손으로 자부심을 갖

고, 조상님을 모시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한다” 고 했다, 또한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늦더위에 도 선조님의 혼과 전통이 살아있는 이곳 문효사 불천위제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종손·부, 충주지역 종친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문경공파 종회는 청렴한 종회, 화합과 소통하는 종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대종회와 각 지파 종회와 소통하고 화합하겠다” 고 하였다. 대종회 주영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문경공 및 광양군, 정효공, 증장공 선조님의 불천위제 준비를 해주신 광희 종손 및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 지파 종회장, 종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례를 모심에 선조들의 나라 사랑, 광주이씨 문중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면면히 물려주는 불천위제의 의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하였다.

제례 봉행에 있어 문경공 선조는 단독 진설하고, 광양군, 정효공, 증장공 선조 3분은 합설로 진설하여 합제로 진행하였으며, 문경공 선조 초헌에는 광희 종손, 아헌에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종헌에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이 헌작하였으며, 광양군, 정효공, 증장공 선조 초헌에는 병채 전 대종회 감사, 아헌에 승덕재공계 상훈 종회장, 종헌에 동고상공계 근배 종회장이 헌작해 주었고, 축에는 근재 현종, 집례에는 종우 탄수종회 총무, 집사에 종덕, 종욱, 종대, 종득, 종민, 승희, 명희, 동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봉행이 끝난 후에는 종손대에서 준비한 음식과, 음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종원간 우애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1) 문경공(文景公)의 자는 덕여(德與)이고 호는 이봉(二峯)이며 휘(諱)는 극감(克堧)이니, 세종 9년(1427) 5월 13일 신시(申時) 한성 교동(漢城校洞)에서 충희공(忠僖公, 諱 仁孫)의 둘째로 태어나, 오군골(五君谷, 종로구 신문로 2가)에서 성장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경사를 읽으면 대의에 통달하였는데, 세종 26년(1444) 18세의 연소한 나이로 식년문과에 병과급제하여, 한림(翰苑)에 들어 집현전(集賢殿)에 뽑히고 사관(史官)이 되었다. 세종 29년 정묘중시(淸和)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고, 문종 원년(1392) 대제학(大提學) 정인지의 추천으로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으며, 이때 고려사(高麗史)를 편제하였고, 문종 2년(1392) 질병으로 관직을 사직하고, 충주향(忠州)에 내려가 정양하였다. 세조 1년(1455) 수양대군의 즉

위에 즈음하여, 좌익공신 3등에 녹훈되어 검상으로 복직되고, 이조참의를 배명받아, 왕세자가 책봉되었을 때, 보도(敎育)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세조의 두터운 신임으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임무를 부여하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교명을 내려 “경은 강개하여 세상을 경륜하는 뜻을 지녔고, 뇌락하여 얽매이지 않는 재질로, 경연에 오래 있어서 문장은 가히 나라를 빛낼만하며, 의론은 족히 임금을 바로 잡을 만하니, 더욱 충의를 분려하여, 국가의 기반을 빛나게 하라” 고 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신 관계를 떠나 친구처럼 대했으며, 동궁인 후일의 예종을 공에게 맡기면서 “내가 세자를 너에게 부탁하니, 네가 잘 보필하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 하고, “경은 세자의 스승이라 내가 믿고 중시하는 바이다” 라 했다.

공은 시호를 “문경(文景)” 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학문에 부지런히 힘써, 편찬 작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는데, 신숙주와 함께 「국조보감」을 수찬하였으며, 「치평요람」·「의방유취」 등을 교정하였고, 1461년에는 왕명으로 신숙주와 함께 「북정록」을 간행 찬진하였다. 승임을 거듭하여 세조 8년(1462) 자헌대부에 승진되고, 광성군(廣城君)에 봉훈되어 대사헌을 제수받았으며, 8월에는 정헌대부(正憲大夫)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승임되고, 홍문관(弘文館) 예문관의 제학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 우빈객이 되니 그 해 36세였다. 공이 부귀한 집에서 성장하여, 젊은 나이에 영특하고 우아하여, 조정에서 영광인 소문(所聞)과, 좋은 평판이 중외(中外)까지 전하였고, 나이 40에 이미 팔좌(八座三公六卿)의 벼슬에 올라, 당세의 입조사업이 휘赫(輝赫)하니, 이는 호현낙도(好賢樂道)의 천성에서 그러한 것이다. 그 도의를 강마(講磨)하는 데에, 점필재(金宗瑞)와 직량지교(直良知交)가 있고, 문장과 풍채는 저헌(李穡)형과, 사가 서거정과 백종이 될 수 있어, 사림의 속망을 받았으며, 조정에서 재직중에는 항상 교주(交趾)에 있어, 임금의 기허가 컸는데, 세조 9년에 부친인 충희공의 노병으로 사직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곁을 떠나지



문경공불천위제 봉행

<다음페이지에 계속>

않고 약시증을 들었다. 그러나 윤 7월 13일 외간상(부친상)을 당하고, 이어 세조 11년(1465) 1월 6일 내간상(모친상)을 연속하여 당하게 되자, 합장(合葬)으로 모신 묘소 곁에 지은 여막에서,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며, 지냈으나, 이 때문에 몸이 쇠약하여 누웠다가, 기사희생을 못하고 무자년(1468) 윤 7월 27일에 충주향제(忠州鄉第)에서 애통하게도 서거하니 향년 41세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65)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왕이 부음을 듣고 수일간 철조를 하고, 크게 슬퍼하며 “이모(李某)는 충성으로 간하고, 덕망이 높았으며 기우(氣宇)가 호걸스러워 명성이 드높더니, 일찌기 졸(卒)하고 보니 가석한 일이다” 하면서, 영세토록 세사부조(불천위)로 모시도록 하고, 좌의정 겸 세자부의 증직과 문경(文景)이라 시호(諡號)하니,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한 것(勤學好文)을 문(文)이라 하고, 마음이 능히 의리를 제어한 것(心能制義)을 경(景)이라 한다”. 당시 왕세자인 예종은 “이봉(二峯)은 충성스럽게 사람의 잘못을 간하였으며, 도덕과 호걸로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일찍 죽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사관(史官)은 졸기(卒記)에 이르기를 “광성군(廣城君) 이극감(李克堪)은 어려서 영오하여, 경사를 읽고 대의를 통달하였으며, 총명함이 보통 사람보다 지나쳐, 한번 보면 문득 기억하였다. 평생에 일찍이 술을 가지고 손(客)을 전송하지 않았으며, 집에서는 술을 빚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세종 9년부터 세조 14년(1468)까지의 시대를 살다 간, 관료이자 정치가로서 20여 년간 활발한 관직활동을 하면서, 사관으로부터는 「사람됨이 뜻이 크고 기개(氣概)가 있어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굽히지 않고, 이치(吏治)에 달통하게 알며, 모든 일에 사람이 두 가지 의논을 가지나, 공은 한 가지 말로써 정하여 중의를 통쾌하게 하며, 문장을 함에 민첩하여,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하였으며, 공의 학문이 고명하고 문장과 풍절(風節)이 용동(聳動)하여, 도덕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능이 풍부하였다. 용제총화(備齊叢話)에서 성현(成愼)은 「이광성(廣城君)은 문장과 경제의 재주가 넉넉해서 항상 주위에서 국사(國士)라 평(評)했으나, 공이 타인의 입물 됨을 평할 때 냉혹하다 할 정도로 냉철하게 평하였다.」 라고 하였다.

묘소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90번지에 있는데, 갑자사화에 묘(墓)를 파헤쳐 부관참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뇌성벽력이 일어나, 묘를 파헤치지 못하여 피화를 면하였다. 중종반정으로 다시 설원(雪冤)되었다. 배위 정경부인 충주 최씨는 광흥창수 덕노(德露)의 따님으로, 부군을 공경하고 부덕을 조금도 어긴 일이 없으니, 종당이 현부인(賢夫人)이라 칭(稱)하였다. 세종 9년 3월 7일에 탄생하여, 성종 18년 8월 7일 서거하니 향년 61세이며, 묘소는 공과 합묘(合墓)이고, 슬하에 3남 6녀를 두었다.

공은 처가가 충주인 관계로 일찍이 충주(금가면

유송리 반송)에 초막을 장만하여 두었는데, 충주 지역은 기호사림의 유학파가 활동한 대표적 지역으로, 광주이씨는 충주에서 조선유학계의 선도 역할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기호사림의 사상과 학문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교량역할을 하였는데,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기호사림이 형성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과 그 후손들의 충주 이주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의 가문은 5봉중(五峰)중 이봉(二峰)이요, 8극 조정(八克朝廷)의 셋째집으로 조선조에서 10세 문과를 포함한 65명의 문과급제자가 공의 후손으로, 공경(公卿)의 관작(官爵)에 올라 명문가(名門家)의 이름을 내었다. 현달한 후손들로는 성리학자 정효공 연경(延慶), 충주지역 유학의 종주약빙(若氷), 병조판서 정헌공 윤경(潤慶), 영의정 충정공 준경(浚慶), 기묘명현 약수(若水), 을사명현 약해(若海), 도승지 덕열(德悅), 한남군 증영의 정 필영(必榮), 광남군 광악(光岳), 문장가 휴징(休徵), 참판 시만(藎晩), 판윤 의만(宜晩), 판서 하원(夏源), 참판 승원(承源), 등이 있으며, 외손(外孫)으로는 조선 14대 국왕인 선조(宣祖), 성리학자 동춘당 송준길(宋浚吉)과 우암 송시열(宋時烈), 좌의정 심희수, 화가 판윤 강세황(姜世晃)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아들, 손자, 증손자 3대가 4대 사화에 피화(被禍)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2) 광양군(廣陽君)의 자는 국언(國彦)이고, 휘(諱)는 세좌(世佐)이며, 호가 한원(漢原)이니, 세종 을축 1445년 6월 7일 한성 교동(漢城校洞)에서, 문경공(諱 克堪)의 장자로 탄생하였다. 사가재 서거정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김굉필(金宏弼), 성혼(成渾), 정여창(鄭汝昌), 유희인(俞好仁) 등 제현(諸賢)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다. 세조 을유 1465년 생원에 1등으로 합격하여, 예종이 즉위한 뒤 판관을 지냈고, 성종 8년 장악원 첨정으로, 식년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었으나, 주시관(主試官)에 불공하다 하여 파면당하였다가, 수일 후 첨지중추부사에 서용되어, 한원(翰院), 직제학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으로 옮겨 지제교를 겸하였다. 성종 9년에 충청도 관찰사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기해 1479년에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고, 성종 11년에 차례대로 육승지(六承旨)에 올랐으며, 성종 13년에 폐비윤씨 사사(賜死)에 예방승지로 명을 받아 현지에 다녀왔다. (이 일로 인하여 가문이 큰 화를 당하였다).

성종 계묘 1483년에 도승지로서 예조참판에 오르고, 을사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라, 사헌부 대사헌과 형조참판을, 10월에 호조참판에 임명되었으며, 병오 1486년 정월 호조참판으로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사신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외교수완이 능하여 명조(明朝)에서 극구칭찬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기뻐하며, 광양군(廣陽君)에 봉헌하고, 11월에 경상도 관찰사, 기유 1489

년에 성균관 동지사, 대사헌, 호조참판,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성종 계축 1493년에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올라, 경기도 관찰사가 되고, 연산 을묘 1495년 9월에 정헌대부(正憲大夫) 호조판서, 병진 1496년 2월에 함경도 순변사, 6월에 승정대부(崇政大夫) 병조판서에 다시 올랐다. 정사 1497년에 이조판서에 양관 제학(兩館提學)을 제수받았으며, 무오 1498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라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나, 7월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점필재 김종직과 교분이 있다하여, 파면 당하고 갑산(甲山)으로 귀양을 갔다가, 8월에 예조판서에 서용되었으며, 신유 1501년에 판의금부사를 겸임하였고, 같은 해 9월 15일에 3도 체찰사(충청·전라·경상)에 천임(遷任)되었다가, 임술 1502년에 내직으로 돌아와 예조판서가 되었다. 연산 9년 9월 11일 선정전 양노연에 참석하여, 연산군이 내리는 술잔을 어의에 얹지른 실수(당시 공은 風氣가 있었다)로, 22일 함경도 온성(穩城)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정월에 연산군이 어서를 내려, 3월 3일에 특방되었으나, 대사헌 홍자하(洪自河), 대사간 최린(崔隣) 등의 반대로, 다시 강원도 평해(平海)로, 다시 거제도(巨濟島)로 귀양가던 도중, 연산이 자살(受後命)하라는 명령을 내려, 경상도 곤양 양포역에서, 1504년 4월 4일 스스로 목매어 서거하니, 향년 60세이다. 아들 4형제와 동생 세걸(世傑)은 5월 13일과 16일에 각 각 참형을 당하고, 손자들은 모두 귀양가고, 계부(季父)인 좌의정공(諱 克均)은 4월 15일에 사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뼈를 부수는 악형을 당하였으며, 4촌(諱 世匡)과 당질(諱 守恭) 등 일문 9인이 참화를 입었다. 2년 후인 병인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죄가 없이 피살되었다 하여,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임금이 칭찬하는 글을 써서, 구현(九賢 형제, 아들, 조카 등 아홉분이 참형을 당하셨다)에게 내려준 구현문의 편액을 하사 받았으며, 세사부조(불천위)로 모시도록 하였다.

정경부인 양주 조씨는 관찰사 근(諱 瑾)의 따님으로 세종 정묘 1447년에 탄생하여, 연산 을묘 1495년 7월 24일 서거하니, 향년 49세로 묘는 쌍분(雙墳)이며, 슬하에 4남 5녀를 두었다. 아들 4형제가 김굉필 선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고, 다 같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로써 세상에 이름이 났다.

3) 광안군(廣安君)의 자는 장길(長吉)이고 호는 탄수(灘叟) 또는 용탄자(龍灘子), 휘는 연경(延慶)이며, 성종 갑진 1484년 9월 13일 탄생하였다. 연산 10년(1504)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섬으로 귀양갔다가 돌아와서, 중종 2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할 뿐 과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중종 13년 방환된 뒤 재행을 겸용한 인물이라 하여 복관된 선조의 자손으로 천거되어, 선릉참봉, 조지서사지, 형조좌랑이 되었다. 이듬해 현량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이 되고, 곧 홍문관 교리로 승진하였다. 일찍부터 정암 조광조 선생을 쫓아 가장 깊이 사귀었으며, 학문

과 도덕으로 세상에서 유종(儒宗)의 정통을 물려 받았다고 하였는데, 교리로서 경연에 참석하였을 때, 재상(宰相)을 선출하는 문제가 논의되자, 조광조를 천거하였으며, 조광조 일파의 인력(引力)으로 급제전에 이미 청요직에 진출하는 혜택을 입었다. 이와 같은 조광조와의 교류로 인하여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축출될 뻔 하였으나, 중종이 어필로 찬인록에서 공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귀양 보내지 못하게 하였다. 현량과가 혁파되자 관직을 버리고 충주 용탄으로 물러나와, 음애 이자, 심청헌 김세필 등과 더불어, 산수를 주유하며 낚시를 즐겼는데, 당세의 학자들이 탄수선생(灘叟先生)이라 일컬었다. 중종 34년 평시서령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인종 11년 현량과가 복과되었으나 또한 나아가지 않았다. 자품이 높고 학문과 식견이 뛰어났으며 지조가 있었다. 학문은 세속에서 벗어나 고명한 경지에 마음을 두어 시종 불변하였다. 덕망과 의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여와 그의 문하(門下)가 되었으며 서경덕, 이준경, 노수신, 강유선, 심건, 조성, 윤증숙 등 당대의 학자를 문인으로 키웠으며, 성리학맥 중 충주학파의 중유가 되었다. 영의정 소재 노수신, 유학자 강유선, 유학자 심건은 공의 문하이자 사위들이다. 명종 3년(1548) 서거하니, 묘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지이다. 선조 무진에 직첩이 들려지고, 이조참판의 증직과 아울러 광안군(廣安君)에 봉해졌으며, 충주 팔봉서원에 향사되고, 뒤에 추가하여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를 정효(貞

孝)라 내렸다. 증제인 충정공 동고상공이 행장을 짓고, 퇴계 이황이 묘갈명을 지었으며, 사위인 영의정 소재 노수신이 묘지명을 지었고, 영의정 번암 채제공이 시장을 지었다.

4) 광남군(廣南君)의 자는 진지(鎭之)이고, 휘는 광악(光岳)이니, 문경공(諱 克堪)의 5대손이고, 탄수선생 연경(諱 延慶)의 손자로, 명종 12년 충주 금가면 유동리에서 아버지 정선군수(諱 好約)와 어머니 경주김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너무 맑아서 대인의 품모가 있었다고 전한다. 학문과 수신에 힘쓰기보다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것을 즐겨, 무관으로 출사하는 데 그 뜻을 두었다. 선조 17년 무과 별시에 을과 16위로 급제하여, 선전관에 제수된 이후 연일현감, 이성현감, 경주판관을 거쳐, 선조 25년 곤양군수에 올랐다. 당시 재직중에 있던 공은 임진왜란으로, 왜적이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을 포위하므로, 목사 김시민은 고립되고, 대세가 위급해지자, 거창의 초유사 김성일의 명령으로, 좌익장이 되어, 전투 도중 김시민이 부상을 당하자, 그를 대신하여 총지휘관으로, 병사들을 지휘한 끝에,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진주성을 지키는 데 성공하였다. 선조 27년에는 의병대장 망우당 곽재우의 부장으로 함께 동래에 갔으나, 왜적이 나오지 않아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곽재우와 서로 선(善)하여 계획을 세워 행하면, 반드시 적중하였으니, 세칭 두 사람을 가리켜 양비장(兩飛將)이라고 하였다. 공은 싸움

에 임해서는 항상 선봉에서, 적을 맞아 싸워 아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고, 특히 활을 잘 쏘아 화살 하나에 3~4명을 죽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후 선조 31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이복남(李福男)을 대신해,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배명을 받고, 명나라군과 합세하여 순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대와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금산과 함양전투에서도 일본군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어 순천 예교성 전투에서는 조·명 연합군의 선봉군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 뒤 훈련원 도정을 거쳐 선조 37년 경기방어사, 수원부사, 영흥부사 등을 거치고, 선무공신 3등(宣武功臣三等)으로 광남군(廣南君)에 봉해졌다. 이후 선조 39년에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거치고 52세 나이로 갑자기 서거하니, 선조 41년(1608) 11월 29일이다. 숙종 37년 문안공(文安公) 강현(姜鉞)이 시장을 지어 충장(忠壯)이라 시호하고 치제를 내렸다. 진주성 승리의 영웅으로 2019년도에 전쟁기념관에서 주관하는 호국 인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경남 사천시 곤양읍에서는 해마다 공을 기리는 “군수님 오신날”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묘소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지이며 정부인 여흥민씨와 쌍분으로 표석이 있으며, 이곳에는 조부 탄수선생, 아버지 군수공을 비롯한 후손들의 묘역이 함께 조성되어 있어, 2011년 11월 4일 충청북도의 기념물 제152호로 지정되었다.

■ 정헌공 숭덕재 불천위제 봉행(奉行)

2023년 9월 24일(음 8. 10)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산30-4 선영에서 정헌공 숭덕재(諱 潤慶)선조의 서세 461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천고마비의 계절 쾌청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총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주병 문화이사, 총회공종회 경래회장, 종용 재무이사, 광릉부원군파 종회 봉수회장, 종길 화수회장, 문수 총무이사, 문경공파종회 경수회장,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회장, 종성 부회장, 종두 총무이사, 광원군파종회 용철회장, 응재 총무이사, 좌의정공파 종회 충교회장, 시하 총무이사, 참판공파 종회 용 총무이사를 비롯하여 본·방손 40여 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봉행하였다. 제례 분정은 초헌에 학수 현종, 아헌에 광릉부원군파 종회 봉수회장, 종헌에 광천부원군파 종회 성호회장, 축에 영희 총무, 집례에 숭덕재공계 종회 상재회장, 집사에 종대, 종덕, 정훈, 성훈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제례 봉행후 음복과 식사는 양수리 연꽃마을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숭덕재공과 동고상공 두형제의 우애처럼 후손들도 승조 돈독 화합해야 한다는 뜻 깊은 얘기 등, 종회 발전에 관한 담소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친교의 시

간을 가졌다.

정헌공(正獻公)은 형조판서를 지낸 문경공 휘극감(諱 克堪)의 증손이고, 판중추부사 광양군(廣陽君) 휘세좌(諱 世佐)의 손자(孫子)이니, 연산 무오 1498년 11월 12일 한성 연화방(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서 아버지 수찬공(修撰公) 휘수정(諱 守貞)과 평산신씨를 어머니로 태어났다. 공의 자(字)가 중길(重吉)이고, 휘는 윤경(潤慶)이며, 호가 숭덕재(崇德齋)인데, 재주와 덕망이 어린 나이에 비하여 일찍 성숙하고, 효도와 우애에 있어, 하늘이 내신 분으로 도탑고 절실한 마음을 지니어, 정성스러웠다.

7세가 되는 해인 연산군 10년(1504)에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 조부 광양군(廣陽君)은 사사(賜死)되고, 아버지 4형제는 5월 13일 참형(斬刑)당하였으며, 일문 30여 인이 몰살당하는 참화(慘禍)를 입어, 급기야는 15세에 이르면 죽이라는 전제하에, 公은 연좌되어 6세의 아우 휘준경(諱 浚慶)과 유모(乳母)를 따라, 충청도 괴산 청안으로 유배(流配) 갔다가, 다시 청천(靑川)으로 옮겨졌다. 2년 뒤 병인(丙寅 1506)년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귀양에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와서는 외가(外家)인 신 판관대(申判官宅)에서 모부인(母夫人)의 엄한 가르침을 받으며, 남명 조식(南冥 曹植)·일재 이항(一齋 李恒) 등과 죽마고우로 유년

기를 지냈다. 어려서는 죽옹 황효헌(蓄翁 黃孝獻)에게서 학업을 닦고, 이어 종형(從兄, 4촌형)인 탄수(灘叟 諱 延慶) 선생에게서 수학하며, 정암 조정암(靜庵 趙光祖)의 성리학설(性理學說)을 수강하였다. 갑자사화에 부친은 참형(斬刑)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되신 모친을 효성으로 모셨으며, 동생과 우애가 돈독하여 역사에 전하고 있다. 중종 신묘(辛卯 1531)년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고, 그 후 3년 만인 갑오(甲午 1534)년에 문과급제(文科及第)하여, 한림(翰林) 설서(設書)와 남상(南牀), 전랑(銓郎), 삼사옥당(三司玉堂), 지제교(知製敎)를 두루 역임하고, 대사간(大司諫)과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호남(湖南), 경기(京畿), 관북(關北), 관서(關西) 네 지방의 관찰사(觀察使)를 지내고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다.

추성정난위사공신(推誠定難衛社功臣, 인종이 죽고 명종이 등극할 때 내린 공신) 3등으로 광산군(廣山君)의 훈봉을 받았으나, 질시(嫉視)가 심



숭덕재공 불천위제를 마치고

하여 스스로 공신록에서 지위주기를 청하여 삭훈(削勳)되었다. 명종 임술년(壬戌 1562) 8월 10일 관서지방(關西地方)의 각 진영을 순행(巡行)하다가, 임소(任所, 공관)에서 향년 65세로 서거(逝去)하니,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고, 시호(諡號)를 정헌(正獻)이라 내렸다. 공은 본성이 강유(剛柔)를 겸하고 덕행(德行)과 기국(器局)이 숙성(夙成)하였으며, 청렴 검소한 행실과 선을 좋아하여 명망이 높고, 사사로운 일을 잊고 국

사를 봉행하였다. 공이 을묘(乙卯 1555)년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어, 호남의 왜변을 당할 때, 영암성(靈巖城)을 지켜 전승을 올렸으니, 명나라 [가용양조문견기(嘉隆兩朝聞見紀)]에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다. 유고(遺稿)가 있고, 묘는 양평군 양서면 고요동(부용리)이며, 아우 충정공 동고상공(東阜相公 諱 浚慶)이 행장을 짓고, 문간공(文簡公) 소재 노수신(蘇齋 盧守愼)이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지었다. 배위는 정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이고 4자 4녀를 두었는데, 장(長)은 중열(中悅), 차(次)는 숙열(淑悅), 다음은 계열(繼悅), 다음은 서열(庶悅)이고, 여(女)는 유기(柳沂), 윤해(尹海), 송응기(宋應期), 송응서(宋應瑞)에게 각각 출가(出嫁)하였다. 송응기의 손자가 우암 송시열(宋時烈), 송응서의 손자가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이다

- 송덕재공계 鍾德記

광천부원군파

■ 광천부원군파 종회 집행부 추석 성묘 다녀오다

광천부원군파종회(회장 : 성호)에서는 늦더위도 수그러들고 어느새 들녘엔 황금물결이 일렁이고 있고, 귀뚜라미 소리 지저귀는 초가을의 문턱에 온 듯한 가을날(9월 25일). 계묘년(癸卯年) 추석을 앞두고 파조이신 광천부원군(諱 克增) 파조 묘소에 성묘를 하였다. 지역 종회장님과 지역의

대표분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해온 제물을 차려놓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 성묘를 하였다. 선산에서 내려다 보는 초월읍 지월리의 마을 풍경은 있는 그대로의 싱그러움을 더해 준다. 묘역을 내려오면서 성묘하고 잘 가꾸어진 묘역을 보며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내려왔다. 재실 주변과 묘소 근처를 점검하고 잔디 상태도 확인하였다. 오늘 참배하신 분들과 광주시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지나간 여름 얘기와 종회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 답소를 나누며 조상님의 음덕에 감사하고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을 나누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리 하였다.

- 광천부원군파 총무이사 종두記



광천부원군 파조 묘소 성묘

■ 수원종회 화수회 성묘 및 정화작업 실시

광천부원군파 수원종회 화수회(회장 : 완길)는 지난 9월 9일(토) 낙향조이신 여(呂) 선조의 성묘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수원종회 화수회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같은 가을 더위속에 선조의 정신을 되새기며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작업에 임하였다.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애초기와 작업 도구로 지난 봄에 사초한 묘소를

말끔히 정리하였으며, 여름철에 자란 잡초와 어



광천부원군파 수원종회 별초

린나무를 제거하였다. 아울러 정화작업이 끝나고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참배를 한 뒤 선조의 얼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 점심 식사와 더불어 정기모임을 갖고, 금년도 화수회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2024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화수회 운영에 관한 경비 등을 수원 종회에 재정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회원 모두는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마음이 뿌듯함을 느끼며 헤어졌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수원화수회 회장 완길記

■ 석담선생 불천위제 봉행



석담선생 불천위제 봉행

2023년 9월 23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 석담 종택에서는 석담선조 389주기 불천위 대제가 봉행되었다.

이번 불천위 대제는 석담선생 종손 병구, 석담종회 회장 수상의 주관으로 봉행되었으며, 참석하신 내빈으로는 대중회 상임부회장 용두, 재무이사 주홍, 관찰사공종회 회장 재석, 재무이사 진

호, 총무이사 종우, 감사 성환, 참판공종회 회장 선래, 총무 용, 좌통례공파 종회 회장 택수, 총무이사 용주, 광주이씨 전국청장년연합회 회장 상철 등 많은 직·방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었다.

한편 지역신문인 「칠곡신문」에서 이번 불천위 대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또 칠곡의 해봄 도서관 도서모임에서는 불천위 대제를 참관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우리의 전통 제례문화를 알리기 좋은 기회였다.

석담선생의 자는 무백(茂伯), 호는 석담(石潭)으로 진사공 덕무(諱 德茂)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준경(諱 遵慶)이고, 아버지는 증좌승지 희복(諱 熙復)이며, 어머니는 청도김씨[淸道金氏, 도화서 별서 김승(金崇)의 딸]이다. 1569년(선조 2) 태어나 1591년(선조 24) 진사가 되고, 1606년(선조 39)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거쳐 광해군 즉위 초 승정원 주서를 지냈다. 1610년(광해군 2) 예문관검열로서 시강원 설서를 겸임하고, 이어 사관으로서 정인홍(鄭仁弘)의

비위 사실을 직서하였다가 탄핵을 받아 사퇴하였다.

그 뒤 예문관의 대교·봉교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다가 수성도찰방(輪城道察訪)을 지냈고 대북의 전횡이 심하여지자 사직하였다. 1623년의 인조반정 후 예조정랑·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교리를 거쳤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초유어사(招諭御史)로 특배(特拜)되었다. 이어 예문관응교·사간·성균관사성을 역임하고 1631년 공조참의에 이르렀다. 특히 여진이 활발히 자국의 강토를 강하게 넓힐 때 변방의 방어에 힘써 표리(表裏: 왕이 내린 안팎의 옷감)를 하사되었다. 성리학자로서 처음에는 이이(李瑋)로부터 수학하였으나 그 사후에 정구(鄭逵)의 문인이 되었다. 1634년(인조 12) 서거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칠곡 사향서원(泗陽書院)과 성주 회연서원(檜淵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석담집(石潭集)」이 있다.

- 석담공 후손 종회 총무 민철記

■ 광주이씨 좌통례공과 감호당선생 사당건립 기공식

2023년 9월 16일(토) 11시. 광주이씨 좌통례공과 감호당(諱 道章 1607 ~ 1677) 선생의 사당건립 기공식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마을에서 거행되었다. 매원마을은 영남 3대 반촌으로 일컫는 곳으로, 좌통례공과 석담선생(諱 潤雨)이 1622년 터를 잡아 뿌리를 내린 곳이다. 감호당 사당건립 추진위원회 수상 위원장(석담공 종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후손들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당 건립을 열망하였으나, 여의치 않다가 대종회의 지원으로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되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행사에는 석담종손 병구, 칠곡 종회 부회장 택후, 수덕 총무, 수팽 전 시조묘 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죽정종회 회장 병국, 감호당종회 회장 수원, 전 지천면장 상기, 칠곡 청년유도회 사무국장 우태주, 사당건축 설계사 최찬 등 많은 내빈들의 참석하여 사당이 잘 건

립되기를 축원해 주었다. 감호당 사당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일대 대지 230여 평에 건립되며,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선생의 자는 태관(泰觀), 호는 감호당(鑑湖堂)으로 좌통례공 극견(諱 克堅)의 차자 승사랑공 지(摯)를 칠곡 입향조로 하는 석담(石潭)선생 윤우(諱 潤雨)의 장자이다. 어머니는 정경부인 인천채씨이고, 부인은 양천허씨이다. 1607년(선조 40)에 태어나 경학(經學)으로 뽑히어 성현(省峴)찰방(察訪)에 임명되었는데, 청덕비(淸德碑)가 있다. 연이어 선공감(繕工監) 직장(直長), 장흥고(長興庫) 직장(直長)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양하고 돌아와 나아가지 않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매원의 감호정사(鑑湖精舍)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처사의 삶을 살았다. 품성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일찍이 가정의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어진 이들을 따라 유학하면서 언행을 갈고 닦아 지조(志操)와 행동이 단아하고 확실하여 사림의 중망(重望)을 받았다.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살았으며 묘소는 칠곡군 왜관읍 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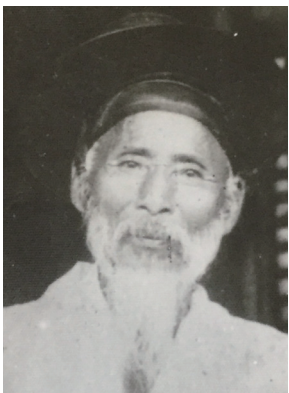
곡에 있다. 방손(傍孫) 지평(持平) 만운(諱 萬運)이 비문을 지은 묘갈이 있다.

- 석담공 후손종회 총무 민철記



감호당 사당 기공식

■ 독립유공자 지강(芝岡) 승연(諱 承淵) 선조



광이 독립유공자 유족회의 광이회보 10월호 인물은 독립유공자 지강(芝岡) 승연(承淵) 선생이다. 선생의 휘는 승연(承淵) 자는 응오(應五) 호는 지강(芝岡)으로 좌통례공(左通禮公, 諱 克堅)의 14대손이다.

1861년 10월 4일 경북 칠곡군 칠곡면 자지리(현재 대구시 북구 국우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오직 학문에 전념하고 천성(天性)이 온후(溫厚)하여 지기(志氣)가 강직(剛直)하며 15세에 이미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섭렵하였다. 그 후 후학양성(後學養成)에 전념하고 실학(實學), 천문(天文), 의학(醫學), 지리(地理)에 출중하여 운현궁(雲峴宮)에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관찰사 이용직(李容植)이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학문과 덕행에만 마음을 기울였다.

1910년 한일합병(韓日合併)이 체결되자, 조국 광복을 위하여 분골쇄신(粉骨碎身)할 것을 결심하고, 동지 이승화, 이현교, 박종경, 이종태, 황종은, 이현국과 비밀리에 국권회복단(國權回復團)을 결성하고 군자금 모금 운동에 착수하여, 서간도 무관양성소(武官養成所)에 전달하였으며, 1913년 7월 만주에 설치된 신흥무관학교(新

興武官學校)의 경비 조달을 위해 국내에 온 박경종(朴慶鍾)과 함께 경북 일원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4년 9월에도 만주에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온 황종언(黃鍾彦), 이형국(李衡國) 등과 20만원을 목표로 활동하다가 1915년 2월 체포되어 같은 해 9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9년에는 유림의 파리장서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중국의 신해혁명 지도자 쑨원(孫文)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유림동지(儒林同志)와 결합하여 파리평화회의(파리장서운동) 호소문 초안을 작성하여 유림의 동지들에게 전달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혼신을 바쳤으며, 이후 모암제(慕巖齋)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 운암지(雲岩池) 수변공원 위쪽(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67)에 운곡서당(雲谷書堂)을 건립하였다. 운곡서당은 구한말(일제시기) 선생의 강학소로서 유학 교육 및 독립 정신 고취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강유거(芝岡幽居)'라는 현판과 1963년에 쓰여진 증건(重建) 소지, '운곡서당' 현판이 있다. '운곡서당(雲谷書堂)' 현판은 영남권(대구)에서 활동한 서예가이며 해인사(海印寺)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현판을 쓴 회산(晦山) 박기돈(朴基敦)이 썼다. 1932년 선생의 후학과 인근 선비들이 초가를 기와지붕 형태의 건물로 고쳐 지었다.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유해는 2011년 10월 9일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내외분 합장으로 안장되

었다. 제자(유림회원)들의 주관으로 선생 탄신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증손자 수백(010-3803-7940) 현종이 있다.

- 유족회 총무 호순記



지강선생 강학소 운곡서당

바로 잡습니다. <2023년 9월호, 제391호>

- 4페이지 첫째줄 (諱 俊慶) ➡ (諱 浚慶)
- 8째줄 (忠正詞) ➡ (忠正祠)
- 11페이지 밑에서 8째줄(新時) ➡ (新詩)
- 둘째줄(瘦馬鳴) ➡ (瘦馬鳴)으로 수마오 수마명

이종구의 바른말 한마디

1. 숫자 발음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온 국민이 열광을 하며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중개 방송을 보면서 짜증이 났다. 왜냐하면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점수 발표를 하면서 글자대로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 시빌때시비[11대12]를 십:일 때 십:이, 십삼 대십짜[13대14]를 십:삼대 십:사, 시보대십육 [15대16]을 십:오대 십:육, 십칠대십팔[17대 18]을 십:칠대 십:팔, 십구대이십[19대20]을 십:구대 이십 “으로 글자대로 발음하느라고 띄어서 발음하여 우리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이 12명 부상자가 115명이 발생한 소식을 전하면서 ‘ 열:두명, 백:열다섯명’ 으로 발음하고 있는데 바른말은 ‘열두명, 백열다섯명’ 이다.

숫자의 올바른 발음을 살펴 보면

“11.12.13.14.15.16.17.18.19.20” 의 발음은 “여라나, 열둘. 열 . 열넷. 열다섯. 열너섯. 열닐곱. 열녀덜. 여라홉. 스물, 시빌, 시비, 십삼, 십짜, 시보,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이다.

그런데 방송인들은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덜. 열:아홉. 스물,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십:팔. 십:구. 이십” 으로 하고 있다.

“111.112.113.114.115.116.117.118.119” 의 발음은 “백열하나. 백열둘. 백열 . 백열 넷. 백열다섯. 백열너섯. 백열닐곱. 백열녀덜. 백 열아홉” 인데 방송인들은 “백:열하나. 백:열

둘. 백:열셋. 백:열넷. 백:열다섯. 백:열여섯. 백:열 일곱. 백:열여덜. 백:열아홉” 으로 발음하고 있다.

단 주먹을 가리키는 “호”가 수자 뒤에 있을 때는 일호, 이십호, 백삼십호로 한다.

숫자 뒤에 “명, 개, 놈, 척, 말, 마리, 동, 평, 가 마, 장 “등이 있을 때는

“한명, 두개, 세놈, 네척, 다섯말, 여섯마리, 일곱동, 여덟평, 아홉까마, 열짱, 열한명, 열두개, 열세놈, 열네척, 열다섯말, 열 여섯마리, 열닐곱동, 열녀덜평, 여라홉까마, 스 무장 “으로 해야 한다.

또한 “되”가 있을 때에는 “한되, 두되, 석되, 녀 되, 다섯되”로 하고

‘말’ 과 ‘가마’ 가 있을 때에는 “한말, 두말, 세말, 네말” “한가마, 두가마, 세가마 “로 해야 한다.

‘개국’이나 ‘개사’가 있을때는 ” 일개국, 이개국, 십개국, 이십개국, 일개사, 이개사, 십개사, 이 십개사 “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발음하게 된 원인은 한글 맞춤법에 “끊어서 발음할 때에는 예사 소리로 발음 한다” 라고 다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2. 다음은 저의 강의를 듣고 보낸 윤규 식 수강생의 글입니다.

숫자 발음과 무지한 자의 창피.

오늘 단문 수업 중 내레이션 지문에 '41개국' 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개국 의 경우 '마흔 한 개국' 이 아닌 '사십 일 개국' 으로 발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 경우에는 끝에 명사 -개 로 되어있

으니 마흔 한 개국 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선생님께서 '개국' 일 경 우 사십일개국 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정정해주 셔서 무지함으로 인한 참사는 거기서 끝이 났 지만 처음에 다른 아이에게 옆에서 괜히 아는 척 하면서 잘못 가르쳤다가 정말 큰일이 날 뻔 했습니다.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잘못된 지식을 전 하려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술을 마 시고 들어왔음에도 잊지 않고 다시 규정집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와 의존명사에 관한 발음 규정은 따로 상세하게 문서화 된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남겨놓을 만한 근거 자료는 없지만 아쉬운대로 나중에 논문이라도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복습 잘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겠습니다.

3. 저는 성우 연기자 이종구이면서 우리말 지키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험버트 박사 님 74주기 행사를 하는 즈음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의 할아버지가 조선어학회 33인중 한 분이 이 강자 래자 [이강래]이십니다.

아마도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대 초부터 우리말 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금년 초에 ‘바 른말이 힘이다’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4대 대종회 도유 사 역임 종환(鍾煥) 현종 별세

광주이씨 대종회 제4대 도유사를 역임하신 「관 정이종환교육재단」 설립자이며 삼영화학그룹 회장인 종환(鍾煥) 현종께서 2023년 9월 13일 오전 1시 48분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고인은 1924년 4월 10일 경상남도 의령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일본 메이지대학교 경상학과를 수료했다. 같은 해 태평양전쟁 막바지 학병으로 끌려가 며 옛 소련과 만주 등지에서 역경을 겪었다. 광복 후 정미소사업과 동대문시장 보따리 장사를 거쳐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눈을 돌려 1958년 사출기 한 대로 삼영화학공업사를 차렸다. 삼영화학그룹 의 시작이다. 회장은 타계 보름 전까지도 산하기 업들의 생산 현장 등을 직접 살펴왔다. 특히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00년 개

인 재산으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라는 교육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국외·국내 장학생 수 백 명을 선발해 지원해 왔다. 재단에 쾌척한 재산 은 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사처럼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천사처럼 쓸 수는 있다’ 는 평소의 지론으로 교육재단 장학생 수는 지난 23년간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박사학위 수여자도 750명에 달한다.

또한 회장께서는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53년 광주이씨 대종회 유사로 참여하여, 1972 년 장재유사, 1981년 광주이씨 대종회 제4대 도 유사를 역임하였다. 대종회 소유의 사무실이 없 어, 여기저기 종친의 사무실을 전전하며, 종무를 처리하던 어두운 시대에, 뜻있는 일부 종친들의 출연을 받아, 광주이씨 대종회 최초의 자체 빌딩 을 마련하였으며, 도유사로 재직하는 동안, 종회 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선조의 행적을 발굴 심의 하며, 역사의 오류를 방지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사적심사위원회를 구성 발족하는 등, 과도기적인 대종회를 안정화 시 켜, 18만 종인이 참여하는 지금의 광주이씨 대종

회가 되도록 시금석을 놓았다. 또한 도유사 퇴임 후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안정적인 대종 회의 발전과 종재 확보에 적극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선대조의 유적들을 보수 정화하고, 화 수회와 광문화 등을 통해 선조의 유혼을 후손에 게 전수한다는 사명감으로, 선·현양 사업에 관 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광주이씨 대종회 의 거목이었다. 유족으로는 장남 석준 삼영그룹 회장, 차남 영준, 딸 환희, 정혜, 지연, 경희 2남 4 녀가 있다.

< 고 관정 이종환 회장님 영결식 조사 >

한 평생 정도(正道)의 삶을 살아오신 고 관정 이종환 회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조사(弔辭)를 올 립니다.

존경하는 고 관정 이종환 회장님! 회장님을 마지막 보내드리는 이 시간, 많은 분들 과 저 또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고향 땅 경남 의령군 용

덕면의 향인들이 ‘우무실’이라 부르는 정동마을에서 1923년 5월 10일 광주이씨 영재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화학공업을 선도하시는 한편, 인재양성에 큰 획을 그으셨습니다.

일찍이 선진 문물에 관심을 가지신 회장님께서서는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상학과에서 수학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제 말기라는 엄혹한 현실을, 회장님 또한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학병으로 끌려가 소련과 만주 국경, 오키나와를 오가며 사선을 넘나들다가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해방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정미소를 운영하던 회장님께서서는 6.25사변 이후 황폐화한 산업 현장에 화학공업을 꽃피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958년, 36살에 삼영화학공업사를 창업하신 동기였습니다. 이후 꽃장판, 스펀지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이어, 포장용 필름과 콘텐츠용 필름을 국내에서 처음 개발해, 수출 상품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등,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선구자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선경지명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이끄신 기업은, 현재 삼영중공업 등 국내외 16개 회사를 거느리는 삼영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회장님의 기업경영에 대한 열정과 성공 사례는 태산과 같이 크고, 하해와 같이 넓고 깊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금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별세하시기 직전인 지난 8월 말까지도, 장학재단을 직접 챙기시고, 산하 기업들의 생산·영업 현장을 직접 지휘하신 것으로도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기신 정신과 가르침은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크고 강한 울림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 발전과 인류 공영을 위한 1등 인재 육성’이라는 신조와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해, 재단에 쾌척한

재산은 1조 7000억원에 달합니다. 연인원 1만 2천여명의 장학생들에게, 2,70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그 지급 규모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입니다. 다만 노벨 과학상을 받는 인재가 나오기를 고대하셨는데, 생전에 보시지 못하고 떠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2008년 발간하신 자서전 ‘정도(正道)’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손을 채운 다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라고 술회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회장님의 이 술회를 통해 저희들은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잘나를 영원처럼, 영원을 잘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못했어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겠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생을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게 하시면서, 기업을 일궈오셨습니다.

돈을 벌고, 쓰는 회장님의 수많은 일화는, 세상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회장님께서서는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적인 식견도 깊으셨고, 악보를 보지 않고도 50곡 정도는 너끈히 오르간을 연주하시는 등 예술적 감각도 남달라 주변에 늘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정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조예가 깊으셨던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 자격으로 회장님께 조사를 올립니다만, 회장님께서도 40여년 전 제4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종회 건물을 최초로 마련하셨고, 사적심사위원

회를 처음으로 만드셔서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시는 등 대종회의 기틀을 다지고 안정화시키는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廣州이씨 대종회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백대지친(百代至親)의 선조님들 유훈(遺訓)을 마음속에 새기고 선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명예를 거울삼아 밖으로는 그 정신과 업적을 널리 선양(宣揚)함을,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관정 이종환 회장님도 저희 종인들이 유훈을 새기고, 선양해야 할 선조님이 되셨습니다.

회장님과 의령 동향 출신인 김연희 시인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의령군이 향토 출신 큰 기업가들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부자축제인 <리치리치 페스티벌>을 참관한 후 회장님을 떠올리며, “생백년 지천년(生百年 志天年 - 삶은 백년을 가고 뜻은 천년을 간다)”라고 쓴 글을 봤습니다.

회장님의 상수(上壽 - 100세의 나이)의 해에 시인께서 남긴 글귀로서, 회장님의 삶과 뜻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저희 종인들은 물론, 이 세상을 향해 천년 만년의 유훈을 남기시고, 이 땅에 오신지 100년 4개월 5일이 되는 오늘 먼 길을 떠나십니다.

오호 통재라!
고 관정 이종환 회장님의 영전에 거듭 애도를 표합니다.

광주이씨 전국 18만 종인과 함께 회장님의 명복을, 마음 속 깊이 빕니다.

영면하십시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분들께 조상님들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5일

廣州李氏 大宗會 會長
제20대 국회부의장 · 제17대 해양수산부장관
이 주 영 울려 드렸습니다.

신간 안내

“바른말이 힘이다”



바른말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이종구 현종의 “바른말이 힘이다”가 출간(하양인 출판)되었다. 본 서적은 평생 방송인으로 살아온 필자가 우리의 바른말을 전파하기 위해 집필한 저자의 역작이다.

이번에 출간된 ‘바른말이 힘이다’ 관련하여 출판사는 리뷰(review)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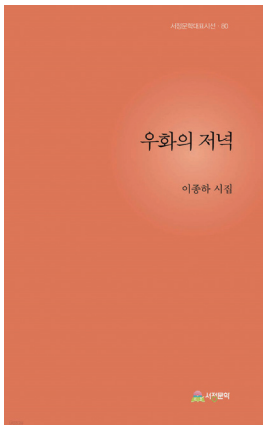
「이 책은 바른말 연구자로 살아온 저자가 우리말 사용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지구상에 서식하

는 10만 종의 조개 중 100분의 1만이 조개를 만든다고 한다. 조개의 상처가 암으로 변형되어 사람에게 귀한 보석이 된다고 한다. 사람도 조개처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키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주시경 선생의 말씀대로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 즉, 말이 바르게 운용되어야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과 글을 바르게 부려 써야 한다.»고 하였다.

저자는 1950년생으로 1977년 KBS 15기 공채 성우로 활동하면서 영화, 방송에도 출연했다. 또한 TBC 성우극회 9기로 데뷔했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KBS 15기 성우로 분류되었다. 배우로서 바른말 쓰기로 살아온 저자는 TBC 동양방송 9기 성우가 되어 광복 20년 등 각 방송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1980년대 KBS 라디오 다큐멘터리 <경제 살리기 50년> 프로그램은 일요일도 없이 4년 8개월 동안 방송되었다. 활동 영역은 외화 더빙·TV 애니메이션, 더빙 영화, 연극배우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바른말을 쓰는 데 지대한 관심이 있어 연구를 계속해 왔고, 바른말 쓰기에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른말이 힘이다」를 출간하게 되었다. <바른말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한국성우협회 회원, (사)한국연극협회 회원, (재)한글학회 일반회원, 방송언어 특별위원, 우리말 지킴이 선정 URI-Asia CSA 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란다.

“우화의 저녁”



이종하 시인의 시집 「우화의 저녁」이 출간(서정문학 출판)되었다. 종하 시인은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이천중·고등학교,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한때 지역 언론 송파신문 발행인을 했고 송파구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

직했다. 월간 『문학세계』와 격월간 『서정문학』에서 시부분 신인문학상 당선으로 등단하였으며 2016년 첫 시집 『춧발마음』을 내었고, 이번에 내는 『우화의 저녁』이 두 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우화의 저녁” 시집 후기에서 「브레히트는 서정시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다. 그럼에도 서정시는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서정시는 영원할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들은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도발적인 세파에 지치고 좌절한다. 살벌하고 폭력적인 시대일수록 인간은 고독하고 그 때문에 많은 밤을 번뇌에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현실은 온갖 불의와 폭력과 위선으로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들은 시대착오적인 선동과 낡은 이념을 답습하는 정치인들에게 지쳐왔다. 거꾸로 주행하는 지하철 안의 승객들처럼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리둥절한 장애물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 나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막아선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결국 장애물과 사투를 벌이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폭력적인 세상과 적극적인 대답각을 세우고 ‘나를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시인들은 언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을 빌려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서정시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딱딱한 현실의 메타포 대신에 또 다른 변형된 은유와 상징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통의 언어로 폐쇄되고 왜곡된 사회에 우화시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소개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는 리뷰에서 「범람하는 언어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외롭다고 아우성이다. 셀 수 없는 많은 말을 하고도 말로서 다하지 못한 말을 시인은 우화로 시집을 엮었다고 했다. ‘산소로 환丸을 빚어/ 사랑에 멎든 가슴들과 한 알씩 나누면 좋다/ ...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한 알의 환幻/ ... 영원히란, 말과 뜻이 다른, 다른 뜻의 영원을 빚어/ 신명나게 한 알씩 나누면 좋다’ 고 <사랑의 묘약>을 노래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주의 기도가 있었던가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라 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정의는 교통법규처럼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제 가고 싶은 대로만 간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인은 우화라는 방식을 열개로 삼아 풍자와 해학, 역설과 고발을 메타포로 승화시켰다. 다산 정약용처럼, 때로는 감삿갓처럼! 우화시가 돋보인다.」 고했다.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란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9월 구독 및 찬조			이주상	20,000	서울 금천
이종덕	10,000	충북 단양	이연재	30,000	인천 부평
이종문	10,000	대구 달서	이종국	10,000	경기 성남
이용필	10,000	경기 수원	이성수	10,000	충북 청주
이종재	10,000	경기 시흥	이영재	50,000	경기 여주
이추연	10,000	경북 칠곡	이성호	10,000	경기 양평
이정덕	10,000	서울 노원	이금교	10,000	경기 양평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종로)
☎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10月 1日

<제392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桂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桂 晷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